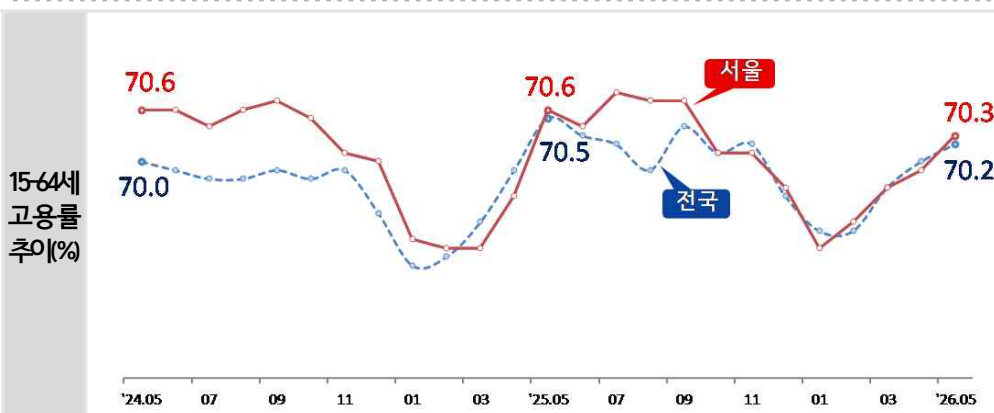


(자료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)

- ▶ 취업자(-1만명)는 4개월만에 감소 전환
- 청년층 감소폭 확대 및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과 건설업의 감소세 지속
- ▶ 고용률(62.0%, -0.2%p)과 15~64세 고용률(70.3%, -0.3%p) 모두 하락 전환
- ▶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 3천명(+1.1%) 증가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별	여성(+4만 6천명)	남성(-5만 6천명)
연령	30대(+2만 7천명), 50대(+2만 2천명), 60세이상(+3만 3천명)	청년(-8만 7천명), 40대(-4천명)
산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 2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+1만 5천명)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명), 건설업(-2만 4천명), 제조업(-4천명)
종사상지위	자영업자(+3만 9천명), 일용근로자(+5천명) 고용원 유 자영업자: +0.3천명 고용원 무 자영업자: +3만 8천명	상용근로자(-3만 9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-1만 1천명), 임시근로자(-3천명)
직업	관리자·전문가(+3만 3천명), 단순종사자(+1만명)	기능원(-1만 8천명), 서비스판매 종사자(-1만 7천명), 사무종사자(-1만 3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5천명)
취업시간	36시간 이상(+1만 4천명), 일시휴직자(+1만 2천명)	36시간 미만(-3만 7천명)



청년	(천명)	취업자수														
		'23	'24	'25.5	6	7	8	9	10	11	12	'26.1	2	3	4	5
취업자수		891	862	832	825	827	802	796	781	778	773	736	742	745	731	745
증감		-5	-29	-26	-15	-17	-62	-44	-61	-52	-50	-63	-55	-55	-77	-87

전국

서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09만 5천명 · 7만 4천명 감소(0.1%↓)	929만 5천명 (전국의 18.2%) · 3만 3천명 감소(0.4%↓)
15세이상 인구	4,598만 4천명 · 25만명 증가(0.5%↑)	845만 3천명 (전국의 18.4%) · 7천명 증가(0.1%↑)
경제활동인구	2,999만 8천명 · 1만 4천명 감소(0.0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5.2%(0.4%p↓) (월) 청년층 47.2%(2.3%p↓)	543만 5천명 (전국의 18.1%) · 2만 6천명 감소(0.5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4.3%(0.4%p↓)
취업자	2,912만명 · 4만명 감소(0.1%↓) - 고용률 63.3%(0.5%p↓) - 15~64세 고용률 70.2%(0.3%p↓) (월) 청년층 43.8%(2.4%p↓)	524만 4천명 (전국의 18.0%) · 1만명 감소(0.2%↓) - 고용률 62.0%(0.2%p↓) - 15~64세 고용률 70.3%(0.3%p↓)
실업자	87만 8천명 · 2만 5천명 증가(3.0%↑) - 실업률 2.9%(0.1%p↑) (월) 청년층 7.2%(0.6%p↑)	19만 2천명 (전국의 21.8%) · 1만 6천명 감소(7.6%↓) - 실업률 3.5%(0.3%p↓)
비경제활동인구	1,598만 6천명 · 26만 4천명 증가(1.7%↑)	301만 8천명 (전국의 18.9%) · 3만 3천명 증가(1.1%↑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인천(65.6) > 경기(65.6) > 대전(64.5) > 서울(64.3) > 광주(63.6) > 울산(62.4) > 대구(60.4) > 부산(60.1)
- 15~64세 고용률(%)
경기(70.5) > 서울(70.3) > 인천(69.7) > 대전(68.8) > 부산(68.4) > 울산(68.1) > 광주(67.7) > 대구(66.0)
- 실업률(%)
서울(3.5) > 인천(3.3) > 경기(3.1) > 대전(3.0) = 광주(3.0) > 대구(2.8) > 부산(2.6) > 울산(2.5)

총괄

- 고용률은 62.0%(-0.2%p)로 4개월만에 하락 전환했고, 전국(63.3%, -0.5%p)을 1.3%p 하회
- 15~64세 고용률은 70.3%로 0.3%p 하락했으나, 전국(70.2%, -0.3%p)을 0.1%p 상회
- 실업률은 3.5%(-0.3%p)로 10개월 연속 하락했고, 전국 실업률(2.9%, +0.1%p)을 0.6%p 상회

취업자수

- 취업자(524만 4천명, -1만명) 감소 전환, 청년층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과 건설업의 어려움 지속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4 (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 (11)8 (12)-30 ('26.1)-17 (2)22 (3)70 (4)9 (5)-10
 - * (전국) 취업자수(-4만명)는 '24.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. 보건복지업,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, 증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폭을 확대 했고, 전문·과학서비스업, 도소매 등은 감소 지속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245 (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 (11)225 (12)168 ('26.1)108 (2)234 (3)206 (4)74 (5)-40

산업별

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과 건설업은 감소 지속하고, 제조업은 6개월만에 하락 전환
-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은 증가로 재전환

- 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 2천명, +2.7%)은 돌봄 복지 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증가 지속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105 (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 (11)62 (12)36 ('26.1)27 (2)77 (3)82 (4)70 (5)62
- 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+1만 5천명, +1.2%)은 소비심리지수 개선되며 증가 전환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4 (6)1 (7)-16 (8)-2 (9)21 (10)3 (11)2 (12)13 ('26.1)35 (2)19 (3)24 (4)-5 (5)15
 - *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5.5)101.7 (6)108.6 (7)110.7 (8)111.2 (9)110.0 (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5.1)110.8 (2)112.1 (3)107.0 (4)99.2 (5)106.1
- 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명, -5.8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 등으로 10개월 연속 감소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34 (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 (11)-8 (12)-41 ('26.1)-62 (2)-69 (3)-54 (4)-66 (5)-60
- ▶ 건설업(-2만 4천명, -7.8%)은 건설경기 부진 및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19개월 연속 감소, 감소폭도 확대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-6 (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 (11)-34 (12)-36 ('26.1)-29 (2)-18 (3)-5 (4)-18 (5)-24
- ▶ 제조업(-4천명, -1.1%)은 6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하며, 취업자중 비중도 하락 *('24.5)9.7%→('25.5)7.3%→('26.5)7.2%
 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5)-129 (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 (11)-12 (12)1 ('26.1)13 (2)13 (3)21 (4)26 (5)-4
 - * (전국) 보건·복지(+21만 2천명), 예술·스포츠(+4만 4천명), 운수·창고(+3만 6천명), 정보통신(+2만 6천명)등의 증가 지속
제조(-14만명), 농림어업(-12만 1천명), 건설(-4만 3천명)은 감소폭 확대, 전문·과학(-8만 9천명), 도소매(-3만 6천명)등은 감소 지속

연령별

- 청년층(-8만 7천명)은 25개월 연속 감소, 20~24세(-4만 8천명), 25~29세(-3만 7천명) 모두 감소폭 확대
- 40대(-4천명)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
- 30대(+2만 7천명), 50대(+2만 2천명), 60세 이상(+3만 3천명)는 증가 지속

* (전국) 청년층(-25만 5천명)은 43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감소폭도 확대, 40대(-4만 3천명)는 3개월 연속 감소
60세 이상(+17만 1천명), 30대(+6만 2천명), 50대(+2만 5천명)는 증가 지속

종사상 지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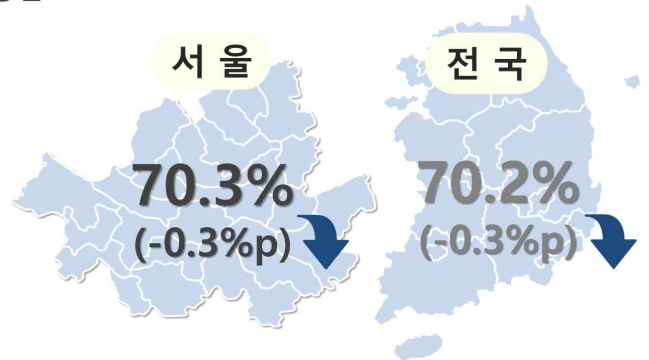
- 상용직(-3만 9천명)은 감소 전환, 무급가족종사자(-1만 1천명)와 임시직(-3천명)은 감소세
- 고용원有(+0.3천명), 고용원無(+3만 8천명) 모두 증가하며 자영업자(+3만 9천명) 증가
- 일용직(-6천명)은 증가로 재전환

* (전국) 자영업자(+10만 9천명)와 일용직(+1만 4천명)은 증가 지속
상용직(-7천명)은 감소 전환, 임시직(-12만 1천명)은 감소 지속하고, 무급가족종사자(-3만 4천명)는 감소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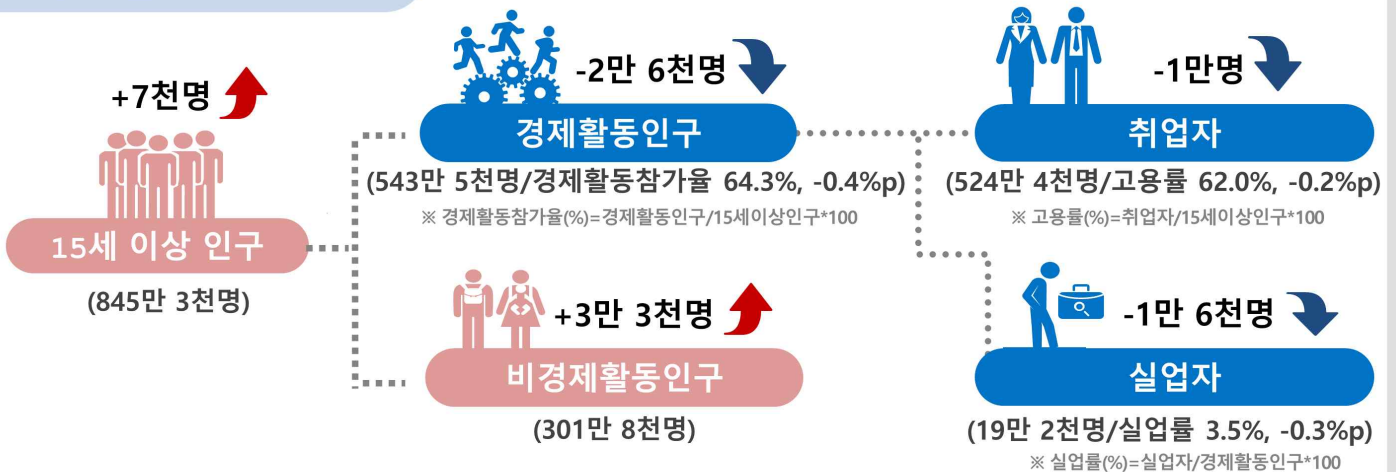


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 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